

[제2장] 세계경제론의 성립과 발달

◆ 하름스(Bernhard Harms, 1876-1939)¹⁾의 세계경제론

1. 시대적 배경

*독일 자본주의의 독점강화

B. 하름스의 「국민경제와 세계경제」가 제1차 세계대전 발발직전인 1912년에 출간 되었을 무렵 독일은 독점자본주의 경향이 강화되었고 제국주의가 팽배하였다. 당시 까지 국내 시장에 의존했던 유럽 자본주의는 수출 중심의 ‘생산자본주의’ 성격에 ‘독점자본주의’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즉, 상품수출에서 자본수출로 성격이 전환된 것이다. 이는 시장 중심의 ‘일국자본주의적’ 성격으로부터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세계자본주의적’ 성격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역사학파의 국민경제학

당시 시대적 상황속에 독일 경제학 연구의 지배적 방법론을 보면, 독일은 전통적인 역사학과 경제학이론²⁾에 입각한 국민경제학적인 방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 영국의 국민경제학 : 영국경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국민경제학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유무역만이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다같이 유리하다는 영국 고전학과 경제학의 주장으로, 만민경제학(Universalö-konomie)이라 불리우는 자유무역론.

☞ 독일의 국민경제학 : 독일의 역사학파는 영국의 자유무역론 대신 보호무역론을 앞세워 독일식 국민경제학을 주장한다. 리스트(Friedrich List : 1789-1846)는 유치산업보호론으로 알려져 있고, 보호무역론의 대변자이자 독일 최초의 국민경제학 제창자이자 국민경제학의 이론체계 정립하였다. 역사학파의 국민경제학적 입장은 정부의 관세보조율에 의해 보호받는 산업 자본가나 지주계급의 이익을 옹호하였고, 미국, 일본 등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에 영향을 미침.

1) 20세기 초 독일이 낳은 위대한 사회경제학자로, 독일의 키일(Kiel)대학의 교수생활을 하였고 동 대학 부설 세계경제연구소를 창설, 오랫동안 연구소장 역임 중 세계경제론에 관한 이론적 탐구와 실제적 분석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저술에 대해서는 이대근, 「세계경제론」 17쪽 각주1) 참고.

2) 역사학과 경제학은 19세기 중반 후발자본주의국인 독일에서 선진 영국의 고전파경제학에 대항하기 위해 형성된 하나의 경제학 흐름으로, F.리스트를 창시자로 한다. 영국 고전학파의 교환이론에 대항하기 위하여 생산력이론에 기초한 「유치산업보호론」을 제창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쇠퇴하게 되지만, 독일과 비슷한 후발자본주의국인 미국, 일본 등의 경제발전에는 큰 영향을 미침.

2. 하름스의 세계경제론 내용

☞ 세계경제란 고도로 발달한 교통기관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고, 국가와 국가간의 국제제약에 의해 질서지어지고 또 촉진되는 것으로서, 지구상의 각 개체 경제간의 관계 및 그것의 상호작용의 종합으로 '관계론적'인 세계경제를 의미한다.

☞ 세계경제론의 특징

- (1) 세계경제의 성립에 있어 교통의 발달이 매우 중요한 조건
- (2) 개체경제(국민경제)라는 하나의 경제단위를 상정
- (3) 세계경제를 이들 개체경제 상호간의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파악

※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세계경제에 대한 하름스의 인식 변화
(1927년 논문 “세계경제와 세계경제법”)

- 관계론적인 인식토대에 '사회구성체론'적인 인식이 가미
- 하름스의 이전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
 - ① 국제무역의 증대
 - ② 인구이동의 증대
 - ③ 교통, 통신의 발달과 같은 개체경제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세계경제 인식
- 하름스의 후기 인식 : 세계경제가 국제규범, 국제조약, 국제법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사회구성체적'인 개념이 첨가

☞ 하름스는 '관계론적'인 세계경제와 '사회구성체적'인 세계경제, 다른 두가지 세계경제의 개념을 혼용한다. 그리고 하름스의 세계경제이론은 세계교통의 발달과 국제법적인 규범의 정비를 강조한다. 이는 생산력의 발달을 전제로 세계경제가 성립하기위해 세계규모의 생산력 발달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해야하는 것과 생산력 발달에 기초한 교통발달이 개체경제간 관계를 진작시켜 세계경제 성립을 가능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에 세계경제론이 역사성이 결여되어있고 경제지리학적(economic geography) 견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비판적 검토

* 국민경제 개념의 사상

☞ 하름스의 세계경제론은 개체경제 및 국민경제와의 상호관계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의 개념인 개체경제(국민경제), 국민경제(국제경제), 세계경제로의 연결성이 취약성이 문제이다.

☞ 하름스의 세계경제학적 입장은 역사학과의 국민경제학적 입장에서부터 독일민족의 경제적 기반인 국민경제의 실체를 부정하는 부르주아적 세계주의라는 비판을 받음. 다른 한편 세계시장을 향한 독점자본의 경쟁적 진출은 결과적으로 민족과 민족 사이의 세계경제학적 입장은 독일 민족의 경제기반인 국민경제 실체를 부정하는 부르주아적 세계주의라고 비판받았고, 세계시장을 향한 독점자본의 진출은 민족과 민족 사이의 투쟁을 야기시킨다고 하여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 세계경제론은 개체경제라는 기초개념에서 출발한다. 하름스의 국민경제의 개념은 세계경제 속 무역 주체를 개체경제로 여기고 개체경제의 국가정책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개념을 파악한다. 국민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 법률이나 정책들을 통해 개체경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기능적 개념으로도 파악하는데 이것은 국민경제 또한 개체경제를 단위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며 같은 개체경제로 성립되는 세계경제와 국민경제의 관계도 불분명해지는 결론에 이른다. 하름스는 불분명한 기초개념파악 및 상호간 논리 연관성의 문제를 세계경제론에서 한 민족의 경제적 토대인 국민경제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세계경제 속에 해소된다고, 국민경제 카테고리 자체를 부정하면서 일단락지으려고 한다. 이는 국민경제학 위주의 독일학계를 비판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당시 서구 국민국가의 기초인 국민경제의 실체를 부정한다는 면으로 서구 자본주의경제의 현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 사회구성체론 개념의 결여

☞ 세계경제 개념속에 관계론적 입장과 구성체론적인 입장의 혼재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관계론적 입장에서 지난 날 영국의 고전학과 시장경제론의 관계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구성체론적인 입장에서 국제제약 등 국제법적인 규범과 질서로 묶여지는 구성체 개념으로, 발전단계론적 입장에서 생산관계나 생산양식의 마르크스경제학적 기초개념에 입각한 사회구성체 개념과는 상이하다.

◆ 마르크스 경제학에서의 세계경제론³⁾

1. 로자(Rosa Luxemburg, 1871~1919)⁴⁾의 세계경제론 :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 하름스와 로자의 차이

- 하름스 : 부르주아 세계주의 입장에서 역사학파의 국민경제학을 비판
- 로자 :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입장에서 국민경제를 부정

☞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계급간의 모순이 대립하고 사민당노선을 둘러싼 이론 갈등이 격화되어있던 시기에 로자는 반전주의라는 강력한 실천적 요구에서 출발 독일 자본주의 수출입을 통한 대외무역의존도를 통계분석 후, 대외무역과 투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경제학자들의 국민경제론 강조는 자본의 대외침략성을 의도적 은폐하기 위해 국민관심을 국민경제로만 묶어 두기 위함이라고 생각.

☞ 로자는 서구자본주의경제는 확대재생산을 위해 국내의 소상품생산부분을 소멸시키고, 후진국이나 미국, 아시아 등 해외에 세계경제에 끌여들여야한다고 주장. 즉, 로자는 서구 자본주의의 해외 비자본주의지역에 대한 침투, 확대과정에서 세계경제 형성의 길을 모색함. 서구자본주의의 침투로 전통적인 경제사회관계가 소멸하고 지구상의 각 지역이 서구자본 지배권에 포섭되어 지구상 전지역 같은 생산자, 구매자, 노동관계로 묶여지는 하나의 세계경제로 만들어져 간다고 봄.

* 로자의 세계경제형성론의 특징

1.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주변 비자본주의영역과 지배종속관계를 맺고 수탈해야한다는 조건을 갖는다. 국내경제를 자본주의 경제, 해외경제를 비자본주의 경제로 이분화하여 비자본주의영역의 침투와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 식량, 노동력까지 공급받는 이런 방법을 통해 자본주의가 존립이 가능하고 비자본주의경제가 사라지는 날 자본주의경제도 소멸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 서구자본주의 침투에 의해 식민지,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 전통경제기반이 파괴되고, 또 다른 빈곤의 축적이 발생하여 세계적 규모의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대립과 갈등은 필수요소로 주장하며 국민경제는 소멸의 길을 걷는다.⁵⁾

3) 20세기초 하름스의 세계경제학 주장은 국민경제학파의 강경함, 독일자본의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한다는 마르크스경제학측의 강한 이데올로기적 비판, 1차 세계대전 서구열강에 전개된 아우타르키경제화(Autarkie Economy : 몇개국의 동맹으로 자국의 국가주의에 의한 반동적 경제그룹화 현상) 및 1930년 세계대공황과 맞물려 성공할 수 없었다.

4) B.하름스와 같은 시기에 기존 역사학파의 방법론을 부정하고 세계경제론적 접근방법을 제창.

5) 민족주의에 대한 로자는 부르주아민족주의에 대한 반감이지만 제국주의에 따른 식민지약소민족의 민족주의이념까지도 부정하게 되었다. 20세기초 마르크스의 재생산표식을 잘못 해석하여 영터리 자본축적론을 전개했다고 하여 국민경제의 실체에 대한 물이해와 국가적 계급모순관계를 세계적 규모로 추상화시켜 이론적 오류를 범한 주범으로 레닌에게 비판받는다. 레닌의 비판은 세계사회주의혁명의 실천적 요구와 결부되어 마르크스경제학 관점에서 정당화되었으나 이는 레닌의 일국자본주의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맹점이 있다.